

2023.06.14.(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오정훈 보좌관(진성준 의원실) 010-2449-6523

## ‘건폭몰이’ 특진이 故양회동 건설노동자 죽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인가?

경찰이 ‘건폭몰이’ 수사에 대한 특진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9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한다. 건설노동자가 반인권적 수사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반성은커녕 더 가혹하게 수사하라고 포상까지 내걸다니 정말로 비정한 국가 폭력이다.

건설노조 변호인단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일부 경찰은 현장 소장들에게 “ ‘채용 안 하면 집회를 하겠다’ 는 등 노조원들이 겁을 준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좋다” 고 적은 고발장 예시 문건까지 돌렸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정황’, ‘예상’ 등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정한 표현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특진 경쟁까지 내거는 것은 막무가내·토끼몰이식 수사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막다른 길에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13일 ‘건설노동자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로 수사를 받은 건설노동자가 절반 이상이 ‘고위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중 30%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故양회동 건설노동자 분신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경찰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답정너’ 식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폭몰이’ 수사의 반의 반만이라도 건설 현장의 만연한 불법 하도급, 상습적 임금체불, 저가 출혈경쟁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장 故양희동 건설노동자와 유가족을 찾아가 조문을 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故양희동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에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부당한 건폭몰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 하길 바란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TF 소속 국회의원 일동